

캄캄한 밤(夜)·시원한 밤(夜) 속 '빛' 부각

3년 만에 개최

무 주반딧불축제가 3년 만에 무주군민, 그리고 방문객들과 만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긴 숨을 골랐던 민족 막을 올리는 각오 또한 남다르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나 무주군의 상징이자 환경지표공증, 천연기념물 반딧불이(그 먹이서식지)를 소재로 펼치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무주반딧불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무주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과 교육·문화·예술축제를 지향하는데요. 올해는 빛이 상존하는 밤(夜)축제로 방문객들의 미움을 사로잡고 무주다움을 한껏 살린 전통공연, 버스킹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해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의 편의와 취향 등을 십분 고려해 프로그램 예약과 농·특산물 판매, 흥보에 온라인 매체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이라 불안감도 없지 않은데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의·관람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부터 신경을 썼는데요. 방역 강화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방역관리요원도 배치합니다.

소독제와 마스크,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도 구비해 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이행, 자발적 거리두기 등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실내 공간은 수시로 환기를 시킬 계획이고요.

Q. 행사장이 8개 테마존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안성 낙화놀이와 드론쇼,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남대천 일원 불꽃공연터, 뮤직레이팅 공연과 반딧불이 숲(실내 반딧불이 관찰)이 기다리고 있는 예체문화관 반디누리관, 버스킹과 휴식, 그리고 간식 & 반딧불 농·특산물과 만날 수 있는 예체문화관 주차장 일원 반딧불 참관장터, 정크아트로 꾸며진 반디미루광장(예체문화관 광장), 어린이 맞춤 공간으로 조성한 봉봉뜨락 놀이터, 무주 팜푸드(먹거리)가 마련되

는 김환태문화관·최북미술관 일원, 각종 빛 예술작품들이 전시되는 한풍루 일원의 별빛정원, 상설공연과 체험놀이터가 있는 등나무어울터로 구성했습니다.

Q. 이번 축제의 특징을 말씀해주시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을 부각시키기 위해 깁킴한 밤(夜), '시원한 밤(夜)'을 주 배경으로 짐짓는 텐데요. 이는 방문객들이 주로 축제장을 찾는 시간대



반디니로관 곤충체험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 만들기 위해 관람형 프로그램 확대 방역 강화 위해 행사장 곳곳 방역관리요원 배치”

남대천 일원 불꽃공연터 등 8개 테마존으로 행사장 구성

행사장 전역 야간경관을 축제 특별함 선사

전통공연·소공연 등 불거리 '한 가득'

”

무주 기절놀이

남대천 생명플러스



반딧불축제 불거리·줄길거리



- 반딧불이 신비팀사
- 스페셜 신비팀사
- 무주남대천 생명플러스
-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 반디별 소풍
- 반디랜드 체험프로그램
- 등나무어울터 체험놀이터
- 안성 낙화놀이 체험부스
- 봉봉뜨락놀이터
- 전통공연(기절놀이 등)
- 남대천 불꽃 공연
- 남대천 음악회
- 침출장터 음악산책
- 여름밤 음악광장
- 전라북도 국악협회 공연
- KBS 국악현미당
- 조선왕조실록 이언행렬
- 청춘미아크 공연
- 무주중 연극부 공연
- 무주 청소년 동이리연합회 공연
- 웃는날 좋은날 코미디쇼
- 판소리 댄스컬
- 반디누리관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 한풍루 별빛정원
- 반디미루광장 정크아트
- 축제장 일원 야간경관